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톈진사범대	기숙사비	755,000/한 학기
파견지역	톈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9 - 2018.06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7.

파견자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이틀에 걸쳐 분반테스트를 합니다. 첫 날은 HSK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둘째 날은 선생님들과 회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때의 결과를 기준으로 분반이 결정되고, 수업을 들어보고 반을 다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반은 A~F반까지 있고, A반이 가장 높은 반, F반이 가장 낮은 반입니다. 반마다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처음 파견했을 당시 3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E반에서 수업을 들었고 한자, 회화, 듣기, 종합 수업을 들었고, 두 번째 학기는 4급 수준이어서 C반에서 독해, 회화, 듣기, 종합 수업을 들었습니다. 반을 올라갈수록 발표수업도 많아지고, 선생님의 따라 중국인들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숙제는 단어 외우거나 작문, 발표준비 정도입니다.

종합시간에서는 단어,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문법의 쓰임새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예문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해시켜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가끔씩 HSK에 나오는 문법이나 단어도 짚어주십니다.

발표 숙제는 높은 반을 갈수록 많은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 혹은 수업시간에 나온 주제에 대해 찬/반 의견 등 대체적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회화 표현들로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들입니다.

단, 본교와 외국인 캠퍼스가 차로 20분 되는 거리에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중국인 학생이 없고 전부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주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학생들이 많고, 유럽권 학생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하면 회화 실력이 훨씬 늘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며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진사범대학교'와 파견가게 될 '외국인 캠퍼스'가 아예 다른 곳에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온 유학생들이 많은데, 전 다른 학교들보다 이 학교가 가장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알고서도 신청을 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위치가 생각보다 외진 곳에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놀러 나가려면 항상 멀리 나가야 된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중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본캠퍼스의 한국어학과에 방문해서 이름과 연락처, 소개글을 적은 종이를 게시판에 게재하면 중국인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국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띠디가 워낙 싸기 때문에 교통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오포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까운 아오청에 갔다올 수 있고, 870번 버스정류장이 숙소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빈장따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오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과 앞에 슈퍼가 있어서 간식거리를 사기 쉽고, 생필품을 사려면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엔 시장, 2층엔 마트로 되어있습니다. 과일가게도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있는데 매우 싸고, 깎아서 포장할 수도 있는데 추가 금액은 1위엔 밖에 안합니다. 아오청은 천진의 코리안타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종 한국 식당들이 준비해있어 중국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 이용하면 좋습니다. 배달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배달시키면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이야기를 추천합니다. 매니저님 위챗 등록을 하면 위챗으로 주문할 수 있고, 한국어로 된 메뉴판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맛과 양이 아주 훌륭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적응하기 어렵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면 쉽게 적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일주일에 한 번씩 방 검사를 합니다. 이 때 서랍장뿐만 아니라 옷장 신발장까지 모두 열어봅니다. 가장 많이 압수해가는 것은 고데기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냄비도 압수해가니 캐리어에 넣어두고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28일까지 인터넷 사용비 100위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일주일 뒤 연결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사항	소지품 검사만 유의하면 크게 주의할 일이 없습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우선 기숙사 방에 대한 기대를 아주 저버리고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므로 청소하는데 거의 하루가 다 갑니다. 바닥이 카펫 재질 이어서 롤러형식으로 된 테이프로 청소하는 게 가장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1층에서 100위엔 보증금을 내고 청소기를 빌릴 수도 있지만 흡입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기숙사는 앞,뒤 건물이 있는데 앞 건물은 베란다가 없고 뒷 건물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또한 앞 건물은 화장실이 유리로 되어있어서 비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또한 앞 건물 뒤편과 뒷 건물 앞쪽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거리가 꽤 가깝기 때문에 항상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은 뒷 건물 뒤편 방입니다. 층마다 방 상태도 전혀 다릅니다. 1층은 보안이 전혀 안되고, 2층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많고,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3층이 가장 조용하고 방이 깨끗한 편입니다. 단, 책상이 하나뿐이라 탁오바오에서 책상을 하나 더 구입해야 합니다. 학교 측과 진리하오(기숙사) 모두 책상을 구해다 주지 않습니다. 4층과 5층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지내는 편입니다. 4층에는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고 층 전체가 시끄러운 편입니다. 5층도 시끄럽긴 하지만 3층 다음으로 방이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방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아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유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한 부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제가 지냈던 방의 화장실들은 대체적으로 다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지만, 다른 유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타일 전체가 곰팡이가 가득 끼 일일이 청소하는데 고생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압이 유독 낮은 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함께 청소해서 적응한다면 지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이 되면 화장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문을 닫고 생활하고 방향제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 진 첨 부

기숙사 물건이 고장 났을 경우 치엔타이에 말하면 기사님이 수리하러 와주십니다. 가끔 이유 없이 변기물이 막히기도 하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치엔타이에 말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날 오후까지 수리해 주십니다. 전구가 나갔을 경우나, 샤워기가 부서졌을 경우, 세면대가 막혔을 경우, 옷장문이 잘 안 열릴 경우, 방키를 방에 꽂고 그냥 나와서 문을 열수 없을 경우 등 치엔타이에 말하면 바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단 방이 매우 어두운 편인데 이때 전구를 밝은 것으로 갈아달라고 해도 갈아주지 않습니다. 아예 전구가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밝은 스탠드는 필수입니다.

사 진 첨 부

기숙사가 나름 호텔이기 때문에 통금이나 지켜야 할 수칙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매주 방 검사를 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고데기나 전기장판, 전기냄비를 압수해가기 때문에 이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드라이기나 전기포트, 믹서기는 괜찮습니다.) 이불은 일 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긴 하는데 침대 매트리스가 스프링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위에 깔고 덮는 이불을 타오바오에서 구매해서 사용해야 편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p>사 진 첨 부</p>	<p>세탁실은 앞 건물과 뒷 건물에 모두 있는데 앞 건물이 훨씬 깨끗하고 세탁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저녁시간 때에는 사람이 몰려 비어있는 세탁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밤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세탁기가 다 돌아가기 전에 미리 가서 세탁물을 가져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탁물 가져오는 것을 까먹을 경우 사람들이 아무데나 빨랫감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옷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겨울 외투 하나를 도둑맞았습니다.</p>
<p>사 진 첨 부</p>	<p>강의실은 기숙사 앞 건물의 5층을 교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벽걸이 TV와 화이트 보드, 책상 의자들과 각 교실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교실 안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점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방에 잠깐 다녀오거나 한 교실을 수업을 하지 않고 비워서 화장실로만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불일을 보곤 합니다. 강의실에 특별한 시설이 없고 의자와 책상, 칠판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p>
<p>사 진 첨 부</p>	<p>앞서 말했듯 천진사범대는 본캠퍼스와 외국인 캠퍼스가 아예 다른 지역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갈 외국인 캠퍼스에는 호텔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도, 학생식당도 없습니다. 그냥 두 개의 건물 중 앞건물 5층이 교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숙소입니다. 그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캠퍼스를 가면 학생식당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사대 유학생 학생증을 보여주면 되고 결제는 웨이신이나 쓰푸바오로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갈 때 학생증은 필수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 학생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p>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 학생을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어렵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저 않고 도전해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번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많이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혼자 외국에 나가서 스스로 작은 것부터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뜻 깊은 경험인지 마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음 중국을 간 날 픽업 나온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막막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방에 캐리어만 두고 나와서 무작정 치엔타이에 앉아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영어로 더듬거리며 말을 걸어서 핸드폰 유심카드를 사는 방법을 물었고, 다행히도 태국 친구가 절 데리고 아오청의 리엔통까지 같이 가서 폰 개통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때 택시를 타는 법, 돌아올 때 숙소 주소를 말하는 법 등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날이 가장 잊지 못할 저의 첫 파견 당일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낯선 국가이고, 중국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상태였더라도 '이곳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는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열린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도전하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뭐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언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간관계'입니다. 역시나 낯선 타국에서는 왜 이리 외롭고 작은 일에도 힘이 드는지, 한국에서 힘든 것은 새발의 피였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도 첫 파견 후 두 달 넘게도 밤마다 우울하고 외로워서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얘기하면서 위로받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이미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친구도 사귀고, 중국어도 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 모두 같이 다니는 한국인 친구 없이 저 혼자 다니는 편이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들과 어울리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국인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외국인 친구랑만 다니려고 하는것도 좋지 않습니다. 누구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룸메이트 역시 잘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학기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었는데 생활하는 데에 있어 작은 언쟁이 있었지만 항상 밖을 나갔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몽골인과 룸메이트를 했는데 생활패턴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결국 나중에 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꾼 방에서 만난 새 룸메는 키르기스스탄 룸메이트였는데 정말 단 한 번의 마찰없이 잘 지냈습니다.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는 것도 운인데 룸메이트를 잘 못 만났다고 자책할 필요 없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방을 바꾸면 됩니다. 사실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방을 바꾼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룸메이트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모임 자체를 안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 중국에서 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룸메이트와의 불화 외에 핸드폰도 분실해서 중국에서 새로 폰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도 외국인 친구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큰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을 사느라 비상금을 모두 사용해서 여행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후회는 없습니다. 글로는 다 못 풀어낼 많은 경험들을 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고, 더 큰 성장을 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터득했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중국 교환학생은 단순히 언어를 늘리는 게 아닌 나 자신에 대해 더 배우고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